**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(仙鶴)이 삿기 치니  춘풍 옥적성(玉笛聲)의 첫잠을 깨돗던디  호의현상\*이 반공(半空)의 소소 뜨니  서호 녯 주인\*을 반겨셔 넘노는 듯 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 정양사 진헐대 고텨 올나 안즌마리  여산 진면목이 여긔야 다 뵈는구나 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 부용(芙蓉)을 고잣는 듯 백옥(白玉)을 믓것는 듯  동명(東溟)\*을 박차는 듯 북극(北極)을 괴왓는 듯 |  |  | |  | |  |  | | | **[A]** | |  | |  |  | |  | |  |  | |   놉흘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**혈망봉**이 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 **천만겁**(千萬劫)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 개심대 고텨 올나 **중향성** 바라보며  만이천봉을 녁녁(歷歷)히 혀여 하니  봉마다 맷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긔운 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 **뎌 긔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**고쟈  형용도 그지업고 톄세(體勢)도 하도 할샤  천지 삼기실 제 **자연이 되**연마는 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졍(有情)도 유졍할샤  (중략)  그 알픠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셰라  천년 노룡(老龍)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(滄海)예 니어시니 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(三日雨)를 디련느냐  음애예 이온 플\*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 천심(千尋) 절벽을 반공애 셰여 두고 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 **실**가티 플텨 이셔 **베**가티 거러시니  도경(圖經)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 이적선 이제 이셔 고텨 의논하게 되면  **여산**\*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 - 정철, ｢관동별곡｣ -  \*호의현상: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.  \*서호 넷 주인: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(隱士) 임포.  \*동명: 동해 바다.  \*음애예 이온 플: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.  \*여산: 당나라 시인 이백(이적선)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. |